

## '최대 8%'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시…신청기간 첫 주는 '5부제' 운영

등록 2026.05.29 10:00:00 | 수정 2026.05.29 10:42:25



[서울=뉴스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열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시스] 최홍 기자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가 2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됐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에 더해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최대 7~8% 수준 금리가 적용된다.

이전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6%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다만,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 및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는 "청년들은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사항과 이용 조건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취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혜택에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융합해 환산할 경우, 일반형 가입자는 최대 13.2~14.4%,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가입자는 18.2~19.4% 수준의 시중 단기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자산 증식 효과를 보게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다음달 22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전산 시스템 구축, 전산 연계 테스트 등 출시 준비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취급 기관별로는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기관은 다음달 22일 출시, 토스뱅크의 경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기간은 출시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다음달 22~26일 등 첫 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소득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